東亞日報
夕刊
八月十八日(金)
發行所 東亞日報社
電話代表番號 光化門 一九〇〇
新聞價 廣告料

社說
朝鮮米의將來
産米計劃縮少는無策

一

朝鮮米統制問題에 對해서는 昨日本側으로 決定하게되엿다. 여기는 다시 昨日所報를 補足하는 意味로, 總督府 및 其他에 對하야 그러나는 理由及 動機를 指摘하야, 써 朝鮮米問題의 將來의 解決에 資하는 材料를 提供하고저 한다.

二

去春 第六十四議會에 잇어서 來十一月부터 實施될 米穀統制法은 …

三

日本農村으로보면 첫째 米價暴落의 主因은 特히 朝鮮米의 移入過多에 잇다. …

四

그러면 他方, 이것을 朝鮮의 側으로 보면 …

五

그러하야 日本側이 只今 朝鮮米의 …

歐洲大戰以前의 破局的危機에 直面
獨墺關係益益惡化
英佛兩相協議

【聯合巴里十七日發】 墺國의 나치스領袖하비히트氏가 十七日 또다시 獨逸에서 墺地利全國에 나치스의 宣傳放送演說을 行한것으로 因하야 獨墺關係는 더욱惡化하야 이兩國의 關係는 … 歐洲의 政局은 只今世界大戰當時에도 比할만한 破局的危機에 直面하고잇다 … 十七日 다라디에首相은 … 英國의 맥도날드首相과 重要協議를 마치고 … 英佛兩國外務當局間의 … 協議가 終日로 繼續하엿다 … (寫眞은(右)맥首相(左)에首相)

앗시리아人虐殺로 英、이國에正式抗議
大使는卽刻撤退歸國
英、이關係重大化

【聯合倫敦十七日發】 英國政府는 十七日 이라크國內에서 政府軍이 앗시리아人을 虐殺한데 對하야 正式抗議를 提出하고 이라크駐箚英國大使 험프리스氏는 卽刻 英本國에 向하야 撤退하엿다 事態의 重大化에 鑑하야 이라크國王 파이잘陛下는 休暇를 中止하고 倉惶히 바다드로 歸還하얏다

南京抗日會에서 抑留日貨를燒却
抗日活動다시旺盛

【聯合上海十七日發】 最近南京에서는 抗日會의 活動이 依然旺盛하게되어 …

外交部長更迭
正式으로發表

【聯合南京十七日發】 外交部長 羅文幹은 十七日 公式으로 新疆省 … 로 任하고 行政院長 汪精衛가 暫定的으로 外交部長을 … 發表되엿다

東北軍處理와 黃郛의地盤
河南省首席 于學忠
河北省首席 徐廷瑤
察哈爾省首席 龐炳勳
廬山會見서內定

羅新强行
外務部長更迭

【聯合上海十八日發】 羅文幹이 新疆省에 赴하는 結果 그不在中은 汪精衛가 暫定的으로 外交部長을 代理하기로 되엇는바 羅文幹의 旅行은 約四個月의 長期에 …

北鐵第三次會商
滿側、具體案提出
蘇聯、滿側留換算率에不滿
即答을避하고解散

【電通東京十七日發】 北鐵讓渡日蘇滿 第三次私的交涉은 十七日午前十時부터 開會되엿는바 …

一、滿洲國側은 讓渡價格에 對하야는 五千萬圓을 …
一、留와 紙幣圓과의 換算率은 …
一、滿洲國側 提案은 …

四次會商은二十四日
解決點은留換算率
滿洲國側에大畧有利?

【電通東京十七日發】 …

首相支障이없는限 廿三日鈴木訪問
協定成立까지三回會見

【聯合東京十八日發】 …

首相의鈴木訪問은
量보다質의協定?
政友會內의空氣具體化

【聯合東京十七日發】 …

南海洋上에
科學戰展開
海軍大演習第二日

【聯合東京十七日發】 …

佛의六島先占宣言
不承認키로決定
領有를認定치않는다고
來週中抗議提出

【電通東京十八日發】 七月二十五日 佛蘭西政府가 正式으로 發表한 南中國海 스프라트리島以下 六小島의 先占宣言은 …

蘇中不侵條約
俄然히好轉

【聯合南京十七日發】 …

산지발政廳
綿關稅引上
日本品打擊

【聯合東京十七日發】 …

蘭印政府서
移民을制限
日本海外發展制限

【電通東京十七日發】 …

最終決定짓기前에
英本國意見들어
만체스터商議電請을印度承認
심라會商無意義

【電通심라十八日發】 印度政廳은 …

印公、報發表

【電通심라十八日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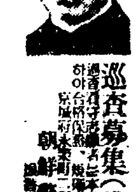
思想取締코저
出版警察法改正
◇豫算二十萬圓을計上
改正要項決定

【電通東京十八日發】 內務省當局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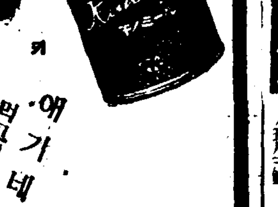
一、不穩思想 …
一、新聞紙가 …
一、納本制度를 …
一、出版物의 …
一、出版印刷와 …

消息
▲ …
▲ …

橫說竪說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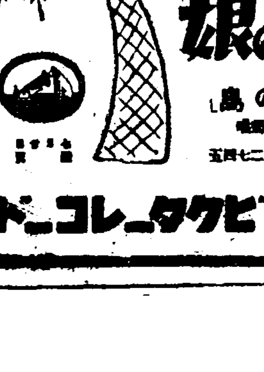

巡査募集(講義錄)
朝鮮警務學會

무럭무럭자라는좋은것!
キノミール
키노미-루
애기네가 먹고싶어하는것
キノミール의 참말좋은것
가루우유 무럭무럭자란는 참말좋은것



醫師試驗法

名古屋市 東海商業學校 生徒補缺募集

曲調가참으로滋味잇는이
流行歌를들으섯습니까?
カナカの娘
「常夏の島」
ビクターレコード


무거운짐실은馬車와 馬夫가斷岸에서墜落

十八일 대현리 앞 고개에서

馬夫는 瀕死의 重傷

시외 신촌(新村) 一백十五번지에 사는 장우순(張錫俊)(二?)은 十八일에 마차(馬車)를 끌고 시내에 들어와 비료(肥料)를 싣고 자기집으로 향하야 가는중 시외 대현리(大峴里) 앞고개에서 잘못 실족하야 높이 약六척가량되는곳으로 마차와 함께 떨어지서 머리에 중상을 당하였으므로 즉시 시내 적십자병원(赤十字病院)에 입원시켜 응급치료하는중이나 방금 혼수상태에 있어 생명을 건지기가 어렵다고한다.

「남포」의爆發로 重傷한石手

죽첨정 삼정목 도로공사중

應急治療로生命은건저

시내죽첨정(竹添町)三정목 三七번지 길(道路)공사를 중촌조(中村組)에서 청부하야 이때전부터 수선하여오든바 十八일오전 九시五十분경에 인부홍순호(洪淳浩)(二?)가 마침「남포」를놓고 개트리다가 아직 불이되지 아니한 것을 잘못알고 건드려서 불연히폭발되며 중상을 당하였다는데 즉시그 부근고려병원(高麗病院)에 입원 수양중 다행이 생명에는관계가없을듯하다고 한다.

人生을悲觀코 철둑의이슬로

스물다섯살 된 새파란청년

◇身首異處의 慘劇

지난 十七일 오후 四시 二十분 함경선 함흥(咸興) 함남흥상(興上)사이 원산기점 백二十킬로 二백六十미터부근을 여객 제五백二十四열차가 진행중 청년 一명이 선로에 가로누어 자살하려는것을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였으나 구하지 못하고 허리를 치어 지사케 하였다. 조사한 결과 그청년은 함남 함주군 삼평면 신흥리(咸州郡三平面新興里)거주 김(金)(二五)으로 판명되었는데 인세사를 비관하고 한것이라고 한다.

◇少年窃盜 시외 한지면 수철리(水鐵里)四十七번지의 五十七호 기창이(金昌熙)(一)는 十八일 오전세시 二十분경에 시내 낙원동(樂園洞)무파공장에서 삼외 기타 파신을 절취하고 광희정(光熙町)一정목으로 방황하다가 본정서원에게 체포되었는데 범인은 금년三월에 진도죄로 개성소년형무소에서 출옥한 전과一범이 있는사 이라 한다.

沙里院署에잡힌 重大犯脫走

사리원경관대평양서활동

平壤에潛入한痕跡

【평양지국전화】 사리원경찰서(沙里院警察署)에 유치중이든 범인 한명이 탈주하야 평양방면(平壤方面)에 잠입하였다하야 동시 중촌(中村)형사와 김(金)형사 두명이 방금 평양에들어와 평양경찰서의 응원을받아 각방면으로 활동중인데 전기 범인은 용강군 동진면 부엽리(龍岡郡洞仙面部業里) 김의수(金義洙)(二)로서 지난 十五일 오전十一시경에 탈옥하야 十六일 저녁은 대동군 대동강면 사정리(大同郡大同江面寺井里) 김천만(金千萬)의 집에서 一박하고 十七일에 평양으로 잠입한것이라는바 경찰의 말에 의하면 범인은 진도형의 자라고하나 사상은 매우 중대한 범이라고한다.

窃盜도가지가지 ◆시내 현저동 二十三번지 이천만(李千萬)(二)은 시내 가처에서 고무구두 유부녀 여자용 복수구두등을 전문으로 절도질을 감행하다가 十八일아침 시내 봉래정 一정목에서 본정서원에게 체포되었다.

◆본지을 일본좌하현(佐賀縣)에 [illegible] 무표 일정한 주소가없는 [illegible] 회중시계(懷中時計)사진기 [illegible] 을 절취하야 지내든중 十八 일본정서원에게 체포되었으며 ◆안동군(安東郡) [illegible] 원림동(院林洞)에 원적을 두고 일정한 주소없는 [illegible] 은 시내 [illegible] 목 三十七번지 [illegible] 점방안에 있는 책상설합속에 [illegible] 만여원을 절취하야 전당포에 잡히어 팔은것이 본정서원에게 지되바되어 十八일아침 본정 전으행앞에서 동서원에게 체포되었다한다.

李青天滿洲에再入 某重大劃策說

齊齊哈爾와 露領方面을 出入

日滿當局緊張警戒

모처정보에 의하면 지난九월 아성현(阿城縣)방면 일대에 빠져 반만(反滿)반일(反日)의 단체를 규합하야 모종의 책동을 계속하며 동아혁성동맹(東亞革成同盟)의 중요간부 이청천(李靑天)은 그후 만주의 검거를 피하야 북평(北平) 상해(上海)등지를 유랑중이라는바 최근에 다시 만주로 들어와 「치치하르」이에 잠입하야 동지에서 다시 노령(露領)으로 [illegible] 하고있다는바 다시 밀보에 의하면 전기단체는 마가구(馬家溝)에 근거를두고 단체와 연합 한(韓)인 단체를 조직하야 국철운행(國鐵運行)의 방해를 감행하는 계획이 있다하야 당국은 아연긴장하야 대경계를 개시하고 있다한다.

前正義府員 崔汝貞被捉

여전하르빈청루合신도관계

最近에共產黨으로活動

모처정보에 의하면 일찍부터 수제를 수사중이든 최여정(崔汝貞)이 봉오(鳳梧)에 잡혔다하는것을 [illegible] 합에 [illegible] 사평가(四平街) 검사시에 서원순에 잡히어 동시 [illegible] 사법주임(谷口司法主任)에 인솔한 취조 [illegible] 에 [illegible] 그는 본시 평아북도 철산군 여하면 가동(鐵山郡餘閑面加洞)에 [illegible] 대정十一년 十八세때에 신의리 사숙사(新義州沙 [illegible])에 가서 당시 동지방에 [illegible] 동하든 조선 [illegible] 정의부(正義府)제八중대 제一소대장 송우식(宋佑植)의 [illegible] 최병규(崔炳奎)의 부지수하에 가입하야 [illegible] 중대에 [illegible] 사의 농정사자와 [illegible] 에 종사하야 [illegible] 하였다는데 방매년에 대정十四[illegible] 十一월에 [illegible] 자(不[illegible]五家子)에 거주하는 [illegible] 의 부모와 형제에게 의지하야 다시 양중 소화四년 十一월에 [illegible] 장접도 도외소여 (哈長線[illegible]) 부방 건팔수(乾八樹)에 가 [illegible]

스와 트럭衝突 乘客十四名死傷

二名은 治療中絕命

德川고사리고개에서

【평양지국전화】 十七일오후 七시경에 덕천(德川)에서 개천(价川)으로가는 자동차가 덕천군풍덕(德川郡豐德面新興里)고사리고개를 질주하든중 [illegible] 쳐 그앞을 향하야 오든 [illegible] 과 [illegible] 충돌되어 전기자동차에 타든 승객(수양만원)十四명중 二명은 중상을 당하야 치료하든중 절명되고 十二명은 중상으로 방금 부근 병원에서 치료를받고 있는중이라 한다.

被告減刑運動

사은회를 조직하야 대활동

五、一五事件의餘波

五、一五사건 공판이 방금 동경 방면에서 개정되어 있는 이때 그들에 대한 감형(減刑)운동이 조선 안에서도 대규모적으로 [illegible] 十一일 세미 [illegible] 四시경一일지이 고요한 [illegible] 에 시내봉래정(蓬萊町) 一정목 一五五번지 [illegible] 永樂旅館 [illegible] 이라는 여관에 [illegible] 자(短刀)로 자기가슴을 찔러 [illegible]

某高等學院一年生 客窓에서割腹自殺

絕命刹那에 戀人對面을 懇請

◇遺書에는身病을悲觀

세 [illegible] 기로 우선하게도 자살한 청년이 있다. 그는 황해도 [illegible] 안방 [illegible] 홍종(洪[illegible]) [illegible] 로서 현재 동경 [illegible] 에 하 [illegible] 학생이라 한다. 그는 바로 죽기전에 「나는 다순 [illegible]」하는 유서 [illegible] 하상 [illegible] 를 비관하고 주도 [illegible] 씨 [illegible] 고 그같이 [illegible] 반하는것을 그의 친척이 주시 [illegible]

이관은 [illegible] 이미 상당한 곳에까지 되어있으나 이에이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에 [illegible] 한편으로 방시 경기도(京畿道)와 전남북 [illegible] 에서는 [illegible] 정의가 되어있다. 경찰당국에서는 이사실을 [illegible] 지하고 이양으로의 진전 여하를 주목 경계중이데 경무국에서는 [illegible]

國民府軍事委員長 金活石突然活動

桓仁縣下에出現

【신의주】 무처에 도달한 정보에 의하면 국민부(國民府)군사위원장 김활석(金活石)은 부하대수 [illegible] 를 이끌고 한인현 [illegible] (桓仁縣 [illegible]) 溝)에 二十여명씩 [illegible] 시기 무엇이가를 획책하고있다는바 장차 그의 행동이 주목된다한다. 이 [illegible] 이 나고 있다 한다. 이러한 [illegible] 경무대구(警[illegible]) 北大邸)에 거주하는 일본사람 [illegible] 이 조선인이 이론을 조직하고 사회 운동에 [illegible] (西恩德)에 [illegible] 적은 「파로텔」과 「빼 [illegible]」 등 [illegible] 이 가지고 전조선에 [illegible] 어서 있든 동지사람에 산포하 야 가세를 올리고저 하는 가운데 있다 한다.

陸軍被告側은 十九日求刑

各方面注目集中

【인밥 동경 十八일발】 五、一五사건 육군측 논고구형은 드디어 十九일 오전 여다시부터 행하기로 되었는데 그공화의후에 즉시 [illegible] 하게된 해군과 민간측의 구형의 바로메터라 고로 육수있을 육군측의 논고구형은 전국적으로 주목을 이끌고 있다한다.

空家에火災

十八일 오전 두시 二十五분에 시내황금정(黃金町)三정목 八번지의九호 치아(淺野)란 일본사람의소유 가옥 二층에서 불이 일어났는바 이집은 본시 비어잇는 공가(空家)로써 방화원인에대하야 소관 본정서 사원계에서 극력조사 하기와 경이(乙人)들이 이집에서 자고있어 그들의 담배불로인하야 발화한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약五十원가량 해우고 진화하였으며 손해는 五十원 가량이라한다.

한집안兩家族 流血의便戰

하진속에서 살면서 양편가족十 四명이 七명씩 나누어 전쟁을 하 야 한편에 중상자 一명을 내어논 사건이 있다.

시외 향양리(香陽里) 五一번지 김운제(金云濟)(二)와 한집에거주하는 최동시(崔東[illegible])(一)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양편 가족 七명씩이 서로 [illegible] 하야 최동 시의 부친 강씨(姜氏)(二)와 김운제의 처 조씨(趙氏)(二)는 각각 이사부상이 되었으므로 동대문서 [illegible] 한다.

光州線水害 一時는不通

十七일이 호우로 인하야 광주선(光州線) 광월(光月) 송정리(松汀里)=송정리 가잠 二四키로 四八六미터=담양천(潭陽川)의 교량이 약 一八○미터 유실되어 오후 다섯시 四十四분부터 불통되었는바 제二五五,三五六열차는 운전을 중지하였든데 十八일 오전한시에 이르러 겨우 복구개통 되었다 한다.

無主郵便物 一千四百通

경성우편국에서보관중

關係者는速히推尋하라

七월중 경성우편국 (京城郵便局)에 보관되어 있는 수취인불명 (受取人不明)의 우편물이 一천三백 九十六통인바 그중에 고신하야 배달한것이 六十四통이고 그 남어지는 방금 보관하고 있는데 유가물(有價物)은 二十四통이고 무가물(無價物)은 三개월만에 불에살 러 버리다는바 관계자는 속히 찾 어가기를 바란다고 한다.

전기 무주우편물중 일본인의것이 三백十二통에 대하야 조선인의 것은 一천八十五통이나 된다고 하다.

시내남대문통(南大門通)세부란스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하는중 뜻 밖에도 바로그전날 시내모처에서 신혼예식을하고 온양온천(溫陽溫泉)에 신혼여행을간 최숙자(崔淑子)=假名(二)를 잠가만보게 해 달라고 그의신랑 [illegible] 애원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親庭가고싶어 媤家에放火

十七歲少婦의 눈물겨운 犯罪

檢事는五年懲役求刑

강원도홍천군홍천면 희망리(江原道洪川郡洪川面希望里) 一二九 번지 김만익(金萬益)(二)의 안해 김원옥(金元玉)(一)은 방화죄로 十七일오전 경성지방법원 제四호 법정에서 적(荻)재판장의 심리를 받고 의분이 그범행을 눈물로 뉘우치어 자백하였으나 검사는 五년의 구형을 하였다.

十六세때인 작년十二월 十九일에 그의 고향인 갈마곡리 (葛麻谷里)에서 전기주소로 시집을 갔지마는 늘 친정이 그리워 주야로 어린애를 해왔다한다.

그런데 금년二월에 남편이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가고나서는 더욱이 그리운생각이 이제할수없어 시어머니 고씨(高氏)에게 재삼청하야 보았으나 거절을당하는 동시에 중임한 꾸지람도 듣엇다한다.

어린 생각에 불을 질러 집이없 게되는날에는 보내줄로 생각하고 지난 五월二十六일 오후 二시경 에 소소대로 지은 변소에 불을놓 아 큰집에까지 불이옮겨 대소동을 일으키었다한다. 가고싶은 친정 대신에 감옥으로가게된 그의정상 이 가긍하바엇다는데 언도는 오 는二十四일이라한다.

農民讀本 二萬部分配

농촌진흥교육재료로서 경기도 지방에서 편찬중의 「경기도농민 독본」이 인쇄가끝나 오는二十一 일부터 발행되게되었는데 그독 본이 도내각 부、군、읍、면、경 찰서、학교、진흥회、기타관계편 에 약二만부를 무료배포하야오는 동기 농한기에는 독본에 의하 야 각지흥회에서 약三개월간 하회를 개최할계획이라 한다.

원이 출동하야 진압하였다고 한 다.

朝鮮橫斷二千里

順安마라손隊成功

【順安】 朝鮮橫斷一週二千里마라손의 順安義明學校生 韓昌職、韓昌俊、吳東瑞三選手一行은 途中에서 暴風雨와 洪水를만나 困難을겪어 豫定보다 늦어진것을 順安到着日인十六日에 期於히 到着할 決心으로 京城、順安間六百里 四日間의 日程이든것을 二日半으로 줄여가지고 十四日午後一時十分에 本社正門을 出發하야 開城、沙里院、平壤을거러 數百群衆歡迎裡에 午後八時定刻에 本報分局前에 歸着하엿다。(順安은選手一行)

本社平壤支局訪問

【平壤】 朝鮮橫斷一週 마라손 順安義明學校學生 韓昌職、韓昌俊、吳東瑞三君은 지난十一日에 順安을 出發하야 意氣旺盛하게 元山、高城、海金剛、京城等地를 거처 지난 十六日午後五時半에 平壤을到着하야 本社平壤支局을 訪問하고 五十分宣川에 到着하야 一泊後翌日朝에 宣川을 向하야出發한바 兩君모다元氣旺盛하엿다。

同六時에 다시 本社平壤支局前에서 出發하야 順安으로向하엿다。

黃海一週兩君

元氣旺盛으로走破

【長連】 本社沙里院支局 後援으로 町里院農業學校生徒 梁在燾鄭祥元兩君은 지난 十五日午前十時 沙里院 本社支局前에서 黃海道一週 마라손壯途에 出發하엿더한은 旣報한바잇거니와 十六日午後零時三十分에 本社 長連支局을 訪問하엿고 同日午後二時 三十分에 殷栗로向發 하엿는데 兩君모다 元氣旺盛하엿다。

國境一週마라손

宣川지나 博川으로

【宣川】 亨盛崇德學校生徒國境一週 二千里마라손選手 劉得健 金周興兩君은 지난十六日 午後七時

中學野球戰績

准准決勝對陣

【電通大阪十七日發】 全日本中等學校野球第六日(准准決勝)對陣은 如左

大正中學對中京商業

松山商業對明石中學

栃木中學對松山中學

明石中學大勝

水戶商追擊不及

【電通大阪十七日發】 全日本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第五日第二試合明石中學對水戶商業戰은 十七日正午부터 明石先攻으로 開始結局六對○으로 明石大勝 試戰 二時七分

得點	
明	102102000—6
水	000000000—0

이소호로新記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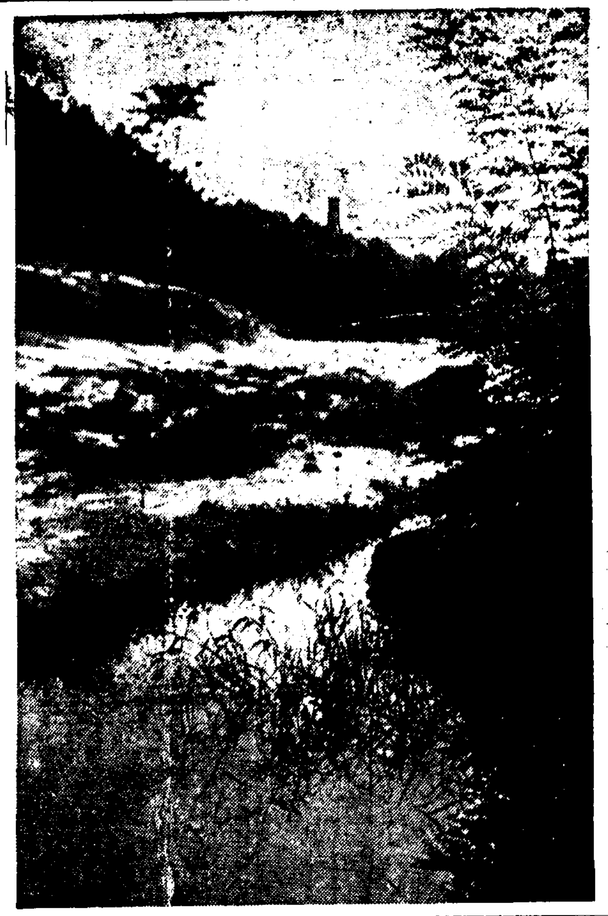
四哩에十九分一秒

—◇누루미時代지나◇—

傳統의 長距離王國 芬蘭에도드디어 『누루미』時代가 지나고新人의 天下로 變遷하야간다。

最近 元氣 旺盛한것은 『이소호로』로서 第二世『누루미』의 稱呼가 높은바 지난 七月 二十二日 芬蘭 『위프리』競技會에서는 四哩을 十九分一秒로 走破하야 『누소』의 지은 世界記錄 十九分二秒六을 깨뜨리엇다。

이때의 每一哩마다의랩프●타임은 四分三九秒八、四分四五秒二、四分四八秒四、四分四七六이엿다。



◇숲속에도가을소리!—(삼청정)에서—

天氣豫報

高氣壓은 北海道에서 日本海北部에 걸치엇다 그러하다 低氣壓은 全南海岸과 北滿洲에 잇다. 全朝鮮은 一般的으로 흐리고 곳곳에 小雨가잇으리다.

明日 曇

十七日最高溫度 二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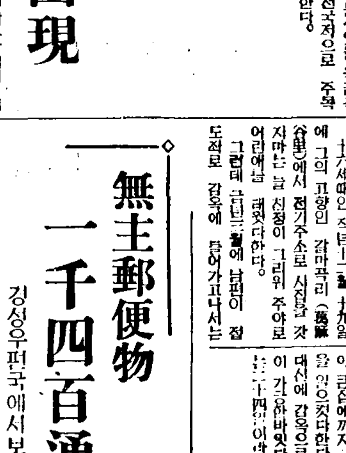
十七日最低溫度 二○、八

南京虫退治는 이렇게 함이第一

南京蟲은 抵抗力이퍽强한버레라、殺蟲劑가困難하지마는、衛生試驗所의 試驗結果에依하면南京蟲退治에가장簡單한方法은이러합니다。

液體イマヅ芳香油를南京蟲의巢窟에撒布하면、南京蟲은대번에即死합니다。

게다가다다미、什器等을汚損할念慮는 絕對로없읍니다、또다다미밑에 新聞紙를깔고 그우에다가イマヅ蠅取粉을充分히撒布해두면、退治後南京蟲의移殖及發生을防止하므로 退治의効果가永續합니다。꼭實行하십시오。



실고초 (진품)

今村洋行 京城府鍾路二丁目二六五 電話光化門六九〇番 振替京城二〇八〇番

◎玉蜀黍大量購入!!!

時價及購入方法其他에對하야弊社로直接照會하여주시옵

平壤船橋里大同江驛前

日本コーンプロダクツ株式會社

(元日本玉蜀黍工業株式會社)

玉蜀黍購買部

리베ー루 림질 効驗速한

內服數時間後에靑色尿가나오며尿道의淋菌死滅하야放尿와함께排泄됨그럼으로止膿이되고痛症이速救함

本人의 印章一顆紛失故로 取消함 京城府昌信洞二九五

電話 賣買 高價買入 金融 京城府(?)洞三九一番 電話光化門二一八番地 大東商店

有給社員募集 男女 中等學校卒業程度 志願者는 履歷書持參面談 京城府大門通 日華生命朝鮮支部

當選謝禮 八月十日 江界邑會議員 金宗元

東亞日報京城販賣部 電光七三〇

當選淋藥 平和堂

金銀高價買入 (福) 石福京城出張所

●中等科 京城中等公民學校 總督認可 商業部 生徒募集

地方論壇

浦項의發展과 朝鮮人의覺悟

浦項 一記者

迎日灣이 埋築되고 浦港이 築港되어 이 뛰어나는 世態의 變遷이 無常함을 말함이어니와 [illegible] 浦項이 한 層의 例가 될 것이다. 本是 ○二三平方里의 市街面積을 가지었으며 人口로는 朝鮮人 一萬餘, 日本人 二千餘를 包擁하고 있다. 二十年前까지도 東海岸에 處하야 寂寞하는 一寒村이었으나 今日의 浦項은 어떠한가? 咸鏡北東海岸線一의 漁, 商港이 되었다. 이러한 發展에 따라 港灣施設의 完備함은 勿論이다. 例하면 百八十六萬圓의 巨大한 工費를 投하야 兄山江을 改修하고 港灣을 完築하야 大浦項建設을 促進하고 있다. 그리고 浦項의 發展은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經濟的 發展으로 東海岸의 漁, 商港으로 面目이 一新하여 지겠음은 明若觀火의 事實이다.

只今 東海岸線에서 數段工事中에 있는 東海岸線이 全通되는 날이면 北朝鮮과 南朝鮮을 連絡하야 咸南北 江原의 모든 産物은 浦項에 集散하게 될 것이오 또 日本과 直航路의 實現은 大邱, 釜山을 凌駕할 巨大한 貿易港이 될 것이다. 이때 朝鮮人은 浦項을 이때에 利用하야 할 것을 吾人의 關心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다.

吾人의 關心을 계울리 할바 아니다. 現下 浦項의 朝鮮人은 市街 左右로 雜居하게 商業을 營爲하고 있는 建築物, 產業, 敎育, 交通 무엇으로 보든지 發展되는 것은 不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이와 같이 市街는 發展되어 가고 있는 機關이 完備하게 施設되어 가는 反面 朝鮮人의 經濟는 날로 窮乏하여 가는 것이다. 여기는 形勢에 躊躇하고 他人의 力量을 바랄수 없고 一般民衆이 自家의 發展을 爲하야 一致團結 努力으로 浦項을 開拓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全大衆이 協力하야 未來를 開拓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浦項의 朝鮮人은 이때에 覺醒하여 [illegible]

浦項의 朝鮮人은 現實에 覺醒하야 團體의 行動을 淸算하고 朝鮮人 全體의 發展을 爲하야 眞摯한 活動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產業敎育方面에 注力하여야 할 것이다. 生產이 없이는 生活問題를 解決할 수 없고 敎育이 없이는 經濟的으로 破滅한 現狀을 挽回할 實力을 가질수 없다. 浦項人士들이여! 우리는 現實에 覺悟하여 모든 것에 附隨行動을 하지 말고 發展에 따라 우리의 將來를 爲하야 우리 機關의 發展, 團結의 擁護에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硏究와 努力을 經濟方面으로 集中하야 浦項의 發展을 企圖하며 활약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하야 將來 朝鮮人의 浦項을 建設하라.

要求條件應諾하고 社長、累累陳謝

◇釜山記者團質問에 對하야 公務中記者毆打事件

加害會社員 繼續取調中

古市署長決意表明 만전유감이 없도록 하다고

【부산】 누차 보도한 바 [illegible] 부산지국 기자 이봉원(李鳳元)군을 공장직원 十수명이 집단으로 폭행한 부산 지방 대포 주식회사 (丸大고무株式會社)의 사건은 구리사키의 부산 신문기자단 (釜山新聞記者團)에 의하여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어서 十七일 오후 四시부터 전기 환대 사장 미창사장(米倉社長)을 방문하고 경위를 요구하자 사건은 이미 사원의 손에 넘어가 조사중이니 진상이 명확하면 전기요구대로 응하겠다 하며 금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겠으니 용서해 달라고 하고 一차회견은 이것으로써 끝나고 제一회 회견종료후 다시 기자단 일동은 부산경찰서에 가서 서장 고시(古市)서장을 방문하고 금후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여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사정을 물어 경찰서장은 금후 의장의 태도여하와 사실의 진상에 비추어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산 상생정(相生町)에서 부산환대고무회사 (釜山丸一町)환대고무회사 (丸大고무會社)파업사건을 취재하려 당시 부산일보 사원 四명을 구타한 사건은 부산서에서도 문제의 중대함을 간파하고 즉시 삼호경부보(三好警部補)를 중심으로 취조에 착수하여 가해자 사원 좌야천지조(佐野千之助)외 十여명을 상대로 부산경찰서 피해자 이봉원(李鳳元)군이 동회사 사원 [illegible] 자를 계속 소환조사하는 동시에 가해자를 계속 소환취조중이다. 그리고 기사관계하라고 신문기자단은 제一회 회견종료후 다시 기자단 [illegible]

秋色—其一—農村카메라巡禮 【一】

가을 풍경의 시절—들판 여름의 更年期에 시들어 보이고 있는 곳 벼 사시로 심어 놓은 이삭이 무거운 끝에 고개를 숙이고 주홍된 빛과 수수의 익은 이삭은 가을 소식을 기쁘게 알리는 듯 하다. 들판에 주렁주렁 매달린 박을 보라 누렇게 익어 가는 곳 …… 가을이 오면 주렁주렁 영글은 박 열매가 말없이 농부의 수확을 기다리고 있다. 【宋千里攝】

學校基金얻고저 敎員이賣藥行商

사회에 만흔 동정을간망 李、金兩氏熱誠至極

【정읍】 전북 고창군 심원면 (全北高敞郡心元面)에 있는 심광학교(心光學校)는 二十四년이란 긴 역사를 가지고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고 이래 꾸준히 경영하여 나오든 바 최근 와서는 경영난으로 학교가 폐교 지경에 이르렀다. 이 학교 교원 이규용(李圭用)씨와 김이순(金伊順)씨는 이 학교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진하여 약 행상을 하여 그 수입으로 학교를 경영하기로 하고 목하 부안 지방으로 행상하고 있다 하며 이 두분의 열성에 감격한 사회 각 방면에서는 다대한 동정이 있기를 바란다 한다. [illegible]

자 [illegible] 사기이 발생한 현장에 입회하고 있는 경찰이 방어하지 아니하였으며 [illegible] 부산서 고시서장(古市署長)을 방문하여 [illegible] 중대화되어 모시서장도 위와 같이 말하였다.

北靑에金鑛 金脈이훌륭

【북청】 경성의 재산가 송성진(宋星鎭)씨 송사후원으로 현재 채광중인 북청군 이곡면 얼롱리(北靑郡泥谷面[illegible]里) 소재인 인의금산소(仁義金山所)는 광업대리인 임일(任一)씨의 담당경영으로 작년 十一월 개광이래 二十여명 오반장 하여 매일 十여본의 채굴하여 광맥이 현재 十여본이 발견되었으니 외의 광맥이 전문기사 十여명이 조사 감정하야 지금은 반반 설비를 진행중인데 당지는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현재까지는 단독경영이나 동업사의 간망에 의하야 자금이 투입되는 一반에게 공개하야 동광을 허하기로 되었다 한다.

야기를 듣고 [illegible] 한 결과 [illegible] 다하니 경과되었음을 다하겠으 오 사실은 사복경관 혼자로는 어떻게 할수도 없었든 것이 아니니까 사건은 당시 이기자(李記者)로 부터 고소를 제기하였으니 신중히 조사한 후 만전유감이 없도록 처치하겠습니다. 운운

秋風따라 頻發하는 爭議

平南船運勞組員 百餘名이또盟罷

선부와 십장간 말썽이 생기어 組合長毆打가動機

【평양】 부내 선교리(船橋里) 동척광업회사(東拓鑛業會社)석탄운반하는 평남선운노동조합원(平南船運勞動組合員)백여명은 十七일 오전중에 돌연히 동맹파업을 단행하였다 한다. 파업의 원인은 지난 十二일 오전七시경에 동회사 배 그二五호의 석탄을 다시 부산(釜山)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큰 배에 옮겨 실는데 십장 송모(宋某)와 목촌(木村)이 동선부에게 가혹히 굴므로 선부가 반항하였다는 리유로 동회사 동조합사무소에 몽키 五호의 선부를 해고시키라 명하였던 바 그러지 않으면 배를 빼앗겠다고 하였으므로 동조합장(組合長) 김정호(金貞浩)씨가 지난 十六일에 타협하러 갔다가 동회사에 갔던 바 동회사에서는 노하고 도리어 구타를 하였다 하여 동조합원들은 크게 분개하여 그와 같이 파업을 단행하게 되었다 한다.

丸大고무盟罷擴大 百餘女職工을解雇

내외같이 다니는 남직공도 해고 解雇手當要求로抗爭

【부산】 누보—매번 一차례 되지않고 발생되는 부산진(釜山鎭) 환대(丸大)고무공장의 금번의 여직공 동맹파업사건은 문제 해결의 서광이 보이기는커녕 一층사건은 악화하여 가서 지난 十六일에는 회사의 주장대로 복종하지 않은 여직공 한모순(韓模順)(二一)외 一백여명에 대하여 정식으로 해고처분을 하고 전기 해고직공과 내외같이 출근하는 남직공 十수명 까지 아무 이유없이 해고처분을 하였다는데 이를 해고당한 남여직공들은 동하지않은 처지에 분개하야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十七일 동회사 사장에게 제출하고 항쟁키로 되었는데 양으로 그 진행이 주목된다고 한다.

一、解雇手當으로 每人 三個月分 賃金을 支給할것。

二、會社都合으로 勸工으로 入社시킬것。

契約條件外의 追加金要求

鐵原鍾淵罷業內容 처음 계약은 손해 난다고

【철원】 기보=철원종연방적회사(鐵原鍾淵紡績會社) 제사공장 여직공 八十여명이 동맹파업을 하였다는 것은 기보와 같거니와 이제 그 자세한 바를 조사하건대 전기 제사공장 건축은 합지회사장문조(長門組)에서 청부하여 가지고 공사중 그 [illegible]

共同耕作의結晶 【楊州郡長峴里共同農園】

咸南道暴風雨被害 二十七萬五千餘圓

도로교량의 피해된것만 補助얻어復舊着工

【함흥】 지난 三四일 동해안을 엄습하여온 대폭풍우의 참화는 함경남도 안변군을 중심하여 인축의 사상과 가옥의 유실, 파손도 상당하거니와 그중 도로교량(道路, 橋梁)의 피해를 더욱 심대하여 함남도 도로과에서 응급 복구공사를 하라고 각군에 조사보고를 재촉하였든바 이제 각관계 부군의 조사보고를 보면 예상외에 피해가 심하여 범인한도의 재정으로는 도저히 불능함으로 총독부에 보조를 신청하여 허가되는대로 복구공사에 착수할 터이라는데 보조신청할 액수는 二十七만五천 八백八十四원이라하며 세별하면 다음과 같다고한다.

道路名	修理箇所	金額
京元線	六	三七五〇圓
平元線	一五	四六〇
元會線	三五	二六五、三六九
咸興線	四	六七九〇
咸鏡線	三	一六〇
同蘇城線	八	三三、三二五
北青中山線	六	六〇六〇
元山府	一	一〇〇〇
同德源岸路水道	一	二〇〇〇
合計		二七五、八八四

消息

◇朴元植氏(咸興) 京城을 經由하야 八時四十五分 上仁川署長赴任

◇北村龍雄氏(全羅南道警察部長) 新任人事次로 本社光州支局來訪

◇高橋敬氏(全北警察部長) 新任人事次去十四日 本社全州支局來訪

◇呂詰乾氏(辯護士光州邑明治町 四丁目 四十五番地로 移轉開業

◇鄭文謨氏(辯護士光州邑大正町 一百四十八番地의二에 移轉開業

◇永井新任仁川府尹 十八日午前 列車로 全州赴任發程

珍島郡全體를 棉花採種田으로

소화 九년도에 三천여정보 全南道의獎勵計劃

【광주】 전라남도농무과에서는 면화(棉花)의 종자개량에 대하여 다년간 시험과 연구를 거듭하여 오든바 근자에는 우량종 종자계(種子系) 三八〇호가 그 수확이 많은 것이 판명되었으므로 이것을 도내 전부에 보급시키려고 한다는바 소화九년도에는 진도군(珍島郡)내의 면작지 三천二백정보 전부를 채종전(採種田)으로하야 소화十년도에는 전도내에 보급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全南庭球陸上 九月十七日開催

【광주】 전남 체육회(全南體育會)에서는 제三회 전라남도 육상경기급 정구대회를 오는 九월十七일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기 위하야 그준비에 분망중이라는데 참가신수는 경기종목 성명 연령 주소 직업등을 기입하여야 한다고 하며 정구에 있어서는 소속단체명을 기입해야 한다는데 신청기는 九월五일까지라 한다.

낫고 읍나가고저 큰 열심 밑에 하기 휴가를 이용하야 매약행상을 하야 기금을 얻고저 입마전에 길을 떠나가지를 여행한다는데 이 여사는 공헌이 많은 심광학교의 확장 속속을 위하야 사회의 많은 동정을 기대한다하며 양씨의 열성에 이반은 경복한다고 한다.

媤母가棍棒으로 며누리打殺

사건진망을 방금 조사중 慶南陝川郡下怪事

【부산】 十七일 아침 경남경찰부에 도착한 전보에 의하면 경남합천군 주회면(陜川郡住會面) 이필이(李必伊)(四二)라는 여자는 자기 며누리 이임선(李任善)(二三)을 곤봉으로 구타하야 즉사시켰다는데 방금 이에 대한 원인과 사실 전말을 소관경찰서에서 엄중히 취조중이라 한다.

實子를刺傷 【평양】 부내서

성리(西城里) 백二번지 김락양(金洛陽)(三〇)은 지난 十六일오후 六시 반경에 술이 취하여 자기 실자 준하(俊河)(二)와 언쟁이 있다가 가졌든 주머니 칼로 준하의 가슴을 찔러 큰 소동을 이르켰다 준하는 곧 기독병원(基督病院)에 입원 시켜 응급수당을 하였으나 생명이 매우 위독하다고 한다.

는 도저히 재산[illegible] 맞지 안는다하야 드디어 추가금을 더 요구하는 조건으로 파업에 이른것이라 한다.

共同耕作으로 年收穫百石

四개년동안 전동민이 근로 楊州長峴里의美擧

【양주】 경기도 양주군 진접면 장현리(楊州郡榛接面長峴里)전리 (全里)주민은 동민전체가 광능(光陵)숲에서 나는 나무장사를 하야 연명할 뿐으로 그나마 도박과 음주로 부패한 생활을 계속하야 날을 따라 파멸뿐이었으나 필경에는 각지로 이산하는 동시에 부녀자는 출타하고 남어지는 대개가 호라비가 되어 청년유지 이재희(李在熙)씨의 용약한 발기로 소화五년一월에 한이래 四개년이된 금일에는 동민三十六호의 공동경작으로 전답 六정五반을 五천원에 매수하야 자작농창설의 본의로 공동경작을 목적하고 회원一동은 협력一치하야 작업에 열심중이라는데 정조(正租)백석이상의 소출을 보리라 한다.

草軍끼리言爭 利鎌으로殺友

十六일 대동군하에 생긴일 加害者는卽時逮捕

【평양】 대동군부산면 화곡리(大同郡斧山面花谷里) 김학수(金鶴洙)는 지난 十六일 오전九시경에 동지 조승렬(趙承烈)(一九)과 같이 부근 산에 가서 풀을 비다가 어떤 일로 싸우다가 피차에 언쟁이 생기어 싸우다가 가졌든 낫으로 조승렬을 찔러 그 의식을 잃게 하였다 가해자는 즉시 대동서(大同署)에 인치되어 취조를 받는 중이라고 한다.

留學生學藝會盛況

【충주】 충주유학생 제三회 하기 예회는 예정과 같이 지난 十五일 본보 충주지국 후원하에 보교 대강당에서 오후八시부터 개최되바 관람자 천여명을 돌파하야 성황을 일우엇으며 동十二시에 무사 종료하였다고 한다.

輪돌리는사람들

地 【一四】 (1)

李無影 作 李靑田 畵

「유아나」

「혜경씨는 어떠케 생각하십니까。」

「글세요。」

「엇젓 갈습니까?」

「오겟죠。 자기가 모든것을 희생하겟다고 까지 말한분이 이런 기회에 공부이를 빼실리가 잇겟소?」

「글세 —온—」

「왜 오실것 갈지 않으십니까?」

「엇젓 갈지 않으네요。 오늘 올 사람이라면 이제쯤은 우리한테 뭐라구든지 말이 잇엇슬게 아닙니까。」

「하긴 그루 그러치만은…… 안오실가?…… 그러나 K씨말을 들어보면 기왕이 보구싶더구 그러든가 보든데요。 점엄을 마음이 없다면야 시간까지 그러케 자세히 물을리가 잇슬리가요?」

「글세 그럼보면 오실까요?」

「꼭 오겟니다 K씨루 우리가 온다는것을 표명하게 아니겟구 오는것입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자기루 지금쯤은 픽 마음의 피로를 갖니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라구 오겟를까요? 그야 우리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구 잇엇다면 혹 수지할지도 모르겟지마는 우리가 여태까지 불안합니다……」

백화점을 건너다 보고 잇다 그 앞에는 조선은행이 마치 무엇을 내 밟게—하는듯이 엎드렷다

청각 일닙시까지는 아직 한시간이나 잇엇다。 그들은 별로 의 론하는 눈치도 없이 사람들 틈에 어깃다。 그러나 뭇발자욱 들어가지도 못해서 식당에 그들을 타 놓아버렷다。 오늘은 그만해도 파식(過食)이라는 것이다。

강식이는 북어대강이 틈고 나오는 지새까치럼 틈려나오는 사람들을 맥없이 바라보고 서잇다。 혹시 상수가 시간을 기다리 느라고 이속에 들어가지나 않엇을가 했든것이다。 그러지니까 「오ㅡ」하듯이 혜경이의 손이어 깨를 툭 쳣다

「꼭 그리 보구계서요 가시지요」

그는 혜경의 뒤를 따라 섯다。

「이리로 바루 가십가요?」 혜경은 두서너 발 드놋다가 고게를 돌렷다。

「이제 여섯시데 벌서 가서요하겟습니까。」

「그래두 이리구 들어다니는 것보다는 낫지요。」

「가실가요 그럼?」

하고 강식이가 방향을 돌리니까 이번에는 혜경이가 배스를[illegible]

「그래요……하긴 한시간쯤이야 그럴만한 가서기도 못하고…… 허지만 그동안에 혹 상수씨가 들어가 지 않으실가요?」

「그게 되려 낫지요。 우리를 보고 피하지 않는한 그렇게 된다면…… 어쩌든지 다 알겠지요, 우리 다 같이 보았으니까 ……」

「그러니까 K씨루 오셔서야 만나보겟지。」 하면서도 혜경은 종로통으로 발을 돌렸다。

「거기선 꼭 정각에요 이층장에 와 우리핫더가 ……」

그렇던 오늘밤 공회당에서 열리는 극예술연구회 (劇藝術硏究會) 제三회 공연(公演)에 K씨로부터 초대를 받엇든 것이다。

「그보다두 저쪽이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떠케 할까요? 여기 라도 하겟지요?」

「네—그보다 늦을지도 모를 것이요。」

이러케 친하스군이 사위 적정 해도 하고 식당으로 들어간 그들이야 얼 개저도 못됏지마는 기실 인숙은 그들이 신혼여행을 떠날 어 사오간 세월 두고 그들을 탐라는 한 사나이가 잇엇다。 감장 모자를 푹 눌러쓰고 안경을 낀 주머니에 끼고 청텁。——그는 동지의 계수간(鷄犬間)대로 상수 그 사람이다。

상수는 그들이 들어간 식당문을 들어 드리닷이 보고섯다가 생각을 햇든지 조선호텔로 발길을 돌리엇다。

「혜……。」

하고 혜경은 잠깐 말을 멈추고 생각하는 눈치든다

「곡 오실겁니다……」 K씨말을 듣든 치도 그럴텐데요。」

이러케 자신잇게 말하는 것이 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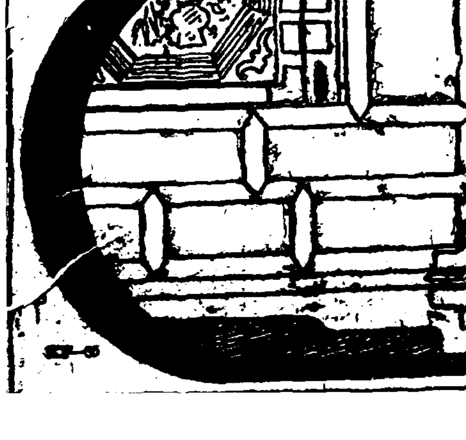
「그러니까 K씨루 오셔서야 만나보겟지요?」

강식이는 웃엇다。 상수가 만약 이번 사건을 끄지 밧을 수 없엇다면 K에게 이런 일을 방관하겟습니까。 만일 그랫더면 K를 버리지 기도 쉬웟다。

「요새가 아니라 바루 어제밤이 라드군요。 요 한달동안은 한번정도 안 오구는 않는 구경두 못했다구 그러든데요。」

상수가 오늘밤에 꼭 오리라는 것을 혜경이가 자신있게 말하는 것은 들으면 적으나마 안심이 되면서도 한쪽으로는 역시 불안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는 오늘밤이 이 관쓰가 끄만기는 하면서도 무서웠다。 오늘밤과 같은 체성을 엿볼에서 「좀더 연기되었으면……」하는 것이 진담의 그의 기원(祈願)이 었을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본정 마구리까지 나려 왓다。 대경만한 골목에서 통통해진 배를 안고 어께로 숨쉬는 데의 삼월(三越)이 넓다란 광장(廣場)에 턱을 괴고 앉아 는 거리를 향하야 그 커다란 입을 딱 벌리고 뭇 마음이는 듯이 다른



衣服保存의 秘訣

衣服保存에는—芳香이爽快하고、衣服을傷치않게하고、殺蟲力이强烈하며、濕氣를完全히除하고、害蟲의孵化繁殖을防止하여야한다—

이條件에맞게하자면世界的으로認을받는除蟲王藤澤樟腦를使用하면決코틀림없읍니다

藤澤樟腦

등 택 장 뇌

世界一의防蟲파防濕料

棉作主任官協議會議
農林局長訓示

지난十六日로부터 今日까지 開催하는 棉作主任官會議에서 農林局長이 訓示한 要旨는 다음과 같다

米移出稅問題動向?
反對를覺悟하고 移出稅制樹立
그러나實現性이殆無

【東京十八日發】農村救濟의 一策으로 朝鮮米、臺灣米에 移出稅를 課하야 米價引上을 圖하라는 制度設定을 하고자 關係官에서 協議中이라는것은 旣報한바어니와 同制度確立에는 當然히 殖民地方面에서 反對할것을 覺悟치않으면 아니될것으로 關係方面에서 對策을 세웟으나 執着力은 없는모양이므로 自然消滅케될듯하다

農林省이所有한 朝鮮米를全部賣却
新穀期까지는完了

農林省所有 朝鮮米中 今次의 第四回拂下後 所持數量은 一八七、四五五石이라는바 正味一四、四九八石은 十月初旬 本年產新米出廻前에 九月上旬부터 三回程度에 分割拂下하기로되었다.

米國인플레 景氣再現?

뉴욕外國向 爲替가暴騰
弗貨急反落을出現

【紐育十七日發】十七日의 紐育外國爲替市場에서는 再昂騰이며 一面 各商品市場의 昂騰을 보고 各國向의 爲替는 假然昂騰하야 前日強調이든 弗貨는 急反落하얏다 即 英國向은 四弗四十八仙으로 前日大引에 比하야 八仙四分三高로 止하고 一面 日本向은 強硬으로 一弗에 六十三仙高이엇다 그리고 大陸向의 爲替는 佛國向이 九弗이 七分三高 獨逸向四十五弗이 高 其中 和蘭向은 反撥이 顯著하야 一弗에 九十七弗이 高의 顯進이엇다

▲뉴욕株式暴騰 【紐育十七日發】十七日의 紐育株式市場은 最近一週의 速騰的低落狀勢를 버서나 弗低와 諸市場高로 昂騰하야 人氣四角으로 五十四弗 아니라 一弗八分五高의 十七弗四分三이엇다

▲米棉도高價로 【紐育十七日發】米棉市場은 昂騰에 投機買로 六十四弗이엇다

日本全國信託 財產十五億圓

【東京十七日發】信託協會 調査에 依하면 七月末現在全國信託會社의 信託財產은 總計十五億 一千四百五十一萬 七千圓으로 六月末에 比하야 一千八百七十萬圓이 增加되어 完全히 十五億圓을 突破하얏다

米日爲替의反騰
◇…廿六弗七十五仙

【東京十七日發】本日의 米日爲替는 六十三仙 反騰 二十六弗七十五仙으로 되엇다
▲東京 【東京十八日發】十八日 朝의 東京爲替市況 對米=賣二十六弗二分一 買二十六弗四分三 對英=賣一志二片十六分三 買一志二片十六分七

金組聯合會 初查員會
二十一日開催

朝鮮金融組合聯合會 設立委員會는 今朝日中에 任命이 되고 二十一日 初查員會를 開催하고 定款等을 決定하야 九月一日부터 開業하게되엇다

金組聯合會令 十八日早日施行

朝鮮金融組合聯合會令은 十八日付 府令第七十八號로써 十八日早日 施行하얏다

殖銀金組勘定 前月末보다減少

殖銀金組 聯合會勘定 十五日現在 各減少이며 前年同期에 比하야 預金一千四百二十九萬六千圓

日本綿布 輸出이漸減
印度等關稅引上으로

【東京十七日發】日本綿布의 輸出은 印度의 關稅引上에 依하야 非常히 減少하얏다

朝鮮滿洲爲替
七月中取組額

採鹽二億餘萬斤
八月十日現在

土有煙草賣渡高

京城通關貿易
七月中의狀況

預金貸出
八月中激減

土地改良 低資受入
九月中으로決定

農林局長 廿日渡東
米穀會議出席

五分利債發行
阿波鐵道買收로

新公債發行條件
藏相裁斷을保留
日銀側 意向問議

滿洲棉花問題
九月協議開催

三和銀行新頭取

棉作主任會狀況

今日의市況
◆八月十八日◆

株式 (單位十錢)				正米 (三等·單位)			
銘柄	後場	比較		地名	標準時勢	比較	
朝新	[illegible]	[illegible]		京城	[illegible]	不變	
東新	[illegible]	[illegible]		仁川	[illegible]	不變	
期米 (仁川·單位十錢)				商品 (單位十錢)			
限月	後場	比較		品目	後場	比較	
先限	[illegible]	[illegible]		綿絲(先)	[illegible]	[illegible]	

株式 保勢의往來
時勢와市況

前場反騰
後場低落
米棉人氣株暴騰 繼續인플레影響
拓新株의波瀾
問題는材料有無 安心買가尙早

期米 下澁裡 相持
前場低落

小觀…◇…大觀

後場低落
如前下澁相持
米豆餘墨
波瀾없은商狀
稱讚못할天候

京城不變
仁川强含
木浦軟弱
釜山軟弱
大邱保勢
南浦低落
群山保勢

朝取主要株取組
朝取短期前場步調
朝取短期後場步調
大阪短期前場步調
大阪短期後場步調

海外經濟·金融及商品市況
海外經濟
金融
商品

正米 各地의商況
各店俵合

株式 一合
期米 一合
大阪短期取引
地方米時勢
各地期米
京城正米時勢
仁川正米時勢
仁川大豆時勢
朝鮮內各地期米先限

秋 現代 ... 夜의女 全七卷 / 狼의奇蹟 全七卷 / 冒險王 全卷 / 速力時代 全卷 / 名馬天來 全七卷 / 따부? / 내가죽인사나이 / 라디오는웃는다 / 아름다운그대 全十卷 / 團成社 / 朝鮮劇場 / 優美館 (電話光一二六八一)

ClibPDF - www.fastio.com